



2014광주비엔날레 도슨트 김미애·조은양·최영서(왼쪽부터)씨가 2전시실 입구에 있는 피오트르 우클란스키의 '무제(크게 별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 “어려운 현대미술 감상 도와드려요”

‘광주비엔날레 숨은 일꾼’ 도슨트 조은양·김미애·최영서 씨

## 외국인 마니아 많아 뿌듯...작품 만지려는 감상 태도 아쉬워

현대미술은 일반인들에게 어렵고, 난해할 수밖에 없다. 광주비엔날레도 마찬가지다. 전시장을 뚫고 나오는 문어, 이불 작가의 난해한 퍼포먼스 영상, 다 타버린 나무를 엮은 작품 등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작품들이 상당수다. 이런 작품들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들은 말 그대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마냥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런 관람객들을 돕는 이들이 도슨트(docent)다.

2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2014광주비엔날레의 숨은 일꾼인 도슨트 조은양(여·51)·김미애(여·40)·최영서(여·21)씨를 만났다. 올해는 모두 40명의 도슨트가 관람객들과 함께하고 있다. 영어 도슨트인 김씨는 1995년 열린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 이어 20년만인 올해 두 번째로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그는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다. 영어 도슨트는 올해 첫 도입됐다.

“1회 때는 광주비엔날레가 마치 월드컵과 같은 분위기에서 열렸어요. 그때 스스로도 너무 뿌듯했죠. 타지역에서 살다가 광주에 다시 오게 되면서 도슨트를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광주비엔날레도 크게 성장한 것 같아요. 주로 외국 인사들을 안내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너무 다재롭다’고 찬사를 쏟아낼 때면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김미애씨)

김씨는 광주비엔날레를 보면서 스스로 광주에서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김씨는 “20년 전에는 체계가 덜 잡혀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마니아들이 찾아오고, 광주비엔

날레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도슨트를 준비하면서 스스로가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황재형 작가의 작품과 오토 피에네의 작품을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꼽았다. 조은양씨는 지난 2011년부터 4년째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로 봉사하고 있다. 수확학원을 운영했던 그는 50대가 되면 ‘문화예술을 즐기는 아줌마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도슨트는 조씨 자신에게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도슨트는 남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죠. 그런 만큼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해요. 작가들에 대해 공부하고, 작가와 작품을 나름대로 해석하기도 해야 하는데 100여 명의 작가들을 두 달 만에 소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내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비엔날레 작품을 공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니 그것도 마냥 행복하죠.”(조은양씨)

조씨는 VIP를 주로 전담하고 있다. 정의와 국회 의장, 광주시장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관람문화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씨는 “타지역 분들이나 외국인 광주비엔날레 마니아는 많은데, 정작 광주비엔날레를 사랑하는 광주시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도 현대미술이 어렵다며 무작정 경계하는 분들과 작품을 만지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코넬리아 파커의 작품과 피오트르 우클란스

키의 작품을 가장 인상 깊게 봤다. 최영서씨는 올해 처음 광주비엔날레 도슨트로 일하고 있다. 조선대 미술학과(시각문화콘텐츠전공)에 재학중인 최씨는 올해 학교를 휴학하고 큐레이터가 갖춰야할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배우기 위해 도슨트를 지원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했는데, 제가 비엔날레의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관람객들을 안내하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보다 관람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기도 했죠. 내년에는 영어 도슨트에 도전하려고 어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최영서씨)

매년 비엔날레를 찾았던 그는 올해는 특히 무게감 있는 작품이 많다고 전했다.

최씨는 “도슨트로 일하면서 현대미술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작품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씨가 꼽은 인상적인 작품은 압바스 아카만의 ‘공중 공원을 위한 연구’다.

글·사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도슨트 설명 들으려면

전시 기간 매일 모두 11차례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진행된다.

소요 시간은 1시간10분에서 1시간30분정도로,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전시관 입구에 있는 도슨트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으로 모여 된다. 문의 062-608-4393.

## 광주 근현대 미술 한자리에

###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서 ‘제8회 원로작가 초대전’

#### 내달 1일까지 김영태·조규일·박행보·이규형 초청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애쓴 원로작가 4인의 작품을 통해 광주 미술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미술협(회장 나상욱)은 오는 10월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제8회 원로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백영 김영태, 백민 조규일, 금봉 박행보, 송과 이규형 화백이 초대돼 모두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치열하게 작업해온 이들을 하나로 엮은 이번 전시는 근현대 광주 미술의 토대를 한자리에서 짚어보고 그 면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이다. 전시에 참여한 원로작가들은 한국 미술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두면서도 지역 미술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화화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애썼다. 특히 이들은 서양화, 한국화, 서예 등 다른 장르에서 활동을 했지만 미술인 개인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후배들을 이끌어왔다.

평생 남도를 떠나지 않았던 김영태 화백은

색채의 미학을 완성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웅장한 산의 기상을 대담한 붓질로 그린 뒤 붉은 색을 강조한 산 시리즈와 햇빛의 미묘한 변화를 담은 해안가의 풍경이 대표작이다.

구상화를 고집해온 조규일 화백은 단순한 대상의 재현보다는 자연에 담긴 뜻을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구현해 왔다. 조 화백은 최근에는 보성에 머물면서 꽃과 여성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박행보 화백은 시를 쓰듯 그림을 그리는 작가다. 사군자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문인화와 수묵화를 거쳐 수묵담채화를 완성하면서 동서양의 융합을 시도했다.

이규형 화백은 평생 서예와 함께 해온 작가로 서예오체(해서·행서·초서·전서·예서)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특히 물이 흐르듯 구사하는 그의 글은 자유롭고 거침이 없다는 평가다. 문의 062-222-8053.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조규일 작 '내장산의 봄'



박행보 작 '산길'

## 오늘 전남대서 ‘지역어문학 전국 학술대회’

### 한국지역학회·전남대 국문과 개최

#### ‘지역어’ 분석 발표·전문가 토론

지역어문학 연구와 진흥을 모색하는 전국학술대회가 26일 전남대 인문대 1호관에서 열린다.

한국지역학회(회장 김동근·전남대 국문과 교수)와 전남대 국문과 BK21사업단(단장 신해진·국문과 교수),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소장 임환보·국문과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 지역어문학 연구와 문화 담론’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1부에서는 박세인(전남대) 박사 사회로 모두 3

명의 연구자가 ‘지역어’를 분석한다. 곤도유리(전남대 국문과 BK21+ 사업단) 박사가 ‘광산농악 도독쟁이굿의 형성과 변화’를, 학지(전남대 국문과 BK21+ 사업단) 박사가 ‘중국어 한국어 학습자의 호남지역 지역어에 대한 인식’, 최윤경(전남대 국문과 BK21+ 사업단) 박사가 ‘최인훈 ‘광장’ 개작의 의의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최명표 전북대 교수 사회로 박태일 경남대 교수의 ‘북한 지역어문학 연구와 중국 번인본’ 기조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문제원(부산대), 남기택(강원대) 박사 등이 ‘지역’을 키워드로 문학과 문화 담론을 이야기한다. 문의 010-2639-9080.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국악의 차세대 얼굴들’ 내일 목포서 ‘청춘樂’ 공연

### 전남도립국악단-대학생 협연

#### 전국 오디션 통해 13명 선발

차세대 국악계를 이끌어갈 젊은 연주자들의 무대가 마련된다.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 박승희)이 27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대학생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청춘樂’ 공연을 갖는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협연자는 도립국악단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대학생 협연자 공모를 진행한 도



심가희

조한

립국악단은 지속적으로 오디션을 실시, 젊은 연주자를 발굴하고 지역 국악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수상한 심가희(전남대 국악과 4년)씨가 가야금 병창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들려주며 조한(전남대 국악과 4년)의 25현 가야금 협연 ‘찬기파랑가’, 김태형(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 2년)의 피리 협연 ‘자춘한일’, 김재훈(서울대 국악과 4년)의 ‘박종선류 이정산조’, 조여경(한양대 국악과 4년)의 해금 협연 ‘할의 노래’, 이해중(중앙대 한국음악과 4년)의 장세납 협연 ‘열풍’, 임정문(서울대 국악과 4년)의 ‘서용석류 대금산조’, 문성혜(수원대 국악과 4년)의 25현 가야금 협연 ‘궁타령의 맛’, 박진선(이화여대 한국음악과 2년)의 판소리 협연 ‘춘향가 중 어사출도 후 어사춘향 상봉막’, 사물놀이 협연 ‘신모듬’ 3악장 등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1만원~5000원. 문의 061-280-58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내일 정기연주회

###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윤영문·사진) 정기 연주회 ‘동요의 오솔길을 따라서’가 27일 오후 5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래 동요 ‘두껍아 두껍아’, 이동훈의 ‘골목놀이’와 1920년~1980년대 불러졌던 ‘가을밤’, ‘고향의 봄’, ‘초록바다’, ‘꼬부랑 할머니’, ‘과수원길’ 등을 선사한다. 또 최근에 만들어진 ‘즐거운 점심시간, 신나는 운동시간’, ‘초생달’, ‘피노키오’, ‘참 좋은 말’ 등을 만날 수 있다.



푸른소리 어린이요율 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아름다운 산’, ‘숲속을 걸어요’, ‘아름다운 베르네’, ‘에델바이스’ 등을 들려준다. 아카펠라 그룹 ‘I sing You Sing’이 ‘꿈꾸는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선사하며 광주여성 챔버 오케스트라도 무대를 빛낸다. 문의 062-613-8246. /김미은기자 mekim@

**특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I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시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